지역 소식통

생명사랑 북토크 콘서트 온라인 개최

김제시보건소(소장 서홍기)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욱)는 2020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9월 9일 '생명사랑 북토크 콘서트'를 유튜브로 시민들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생명사랑 북토크 콘서트는 박준배 김제시장의 축사 및 정신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하여 'TV드라마 상황 속 주인공들에서 찾아보는 자살위험성'과 '어쩌다 정신과 의사' 책을 토대로 정신건강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또한 정신건강문제 관련 우울, 스트레스 등 고민 등에 대한 사연을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홍보 포스터 큐알(QR)코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사연은 직접 답변해주고 '어쩌다 정신과 의사' 책을 선물로 주며 생명사랑 북토크 동영상 시청은 유튜브에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활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봉사

김제시 광활면(면장 정우근)은 복지기동대(대장 강형숙)와 함께 지난 1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세대를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청소 등 폭염 속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광활면 복지기동대는 지난달 초 새로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재구성하였고, 대장 강형숙과 부대장 안광현을 비롯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원 및 공무원 20여명은 선진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홀로 살고 있는 저소득 세대를 방문해 생활쓰레기와 낡고 부서진 가구 등을 정리했다.

또한 집안 청소 등이 어려운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물건들을 정리하고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등 대원들 모두 봉사에 적극 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요양병원 면회금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제한적 비접촉 면회도 전면 금지 시행

완주군 관내 요양병원들의 면회가 전면 중단됐다.

1일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관내 요양병원들이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지난달 23일 0시부터 행정조치 발령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허용했던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관내 6개소 요양병원들은 선제적으로 8월 20일경부터 비대면 면회 인원을 축소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처했고, 면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역 내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980여 회의 자체점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주 2회의 현장점검을 시행해왔다.

또한 외부 감염방지를 위해 신규환자 입원 및 간병인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라순정 보건소장은 "관내 요양병원들이 지금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비대면 면회를 시행해 주었고, 환자 분들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줘 감사드린다"며 "요양병원 환자 및 보호자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발굴 총력

박준배 시장,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선제 대응 강조

김제시는 지난 8월 3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부서별로 발굴한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을 보고하고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제시는 코로나 이후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9대 역점분야 28개 세부사업) 16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 숙원사업해결 및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의 계기로 만들고자 지난 달 부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뉴딜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김제일자리산업진흥센터 구축 ▲지능형 친환경 제조로봇 개발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을 비롯해 총 35개 사업(총사업비 3,887억원)에 대한 추진계획, 논리강화,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전북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한발 빠른 대응으로 국비확보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김제형 뉴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및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한국판 뉴딜 및 전북형 뉴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연계사업 발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규사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딸기 정식 적기 알려드릴게요"…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 시작

완주군이 딸기정식 시기를 맞아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는 2일부터 18일까지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시작, 꽃눈분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농가는 딸기묘를 3~5개 정도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면 된다고 밝혔다.

최근 딸기가격은 수확초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본격적인 수확철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정식 적기보다 다소 일찍 심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꽃눈이 미분화된 묘를 심을 경우 영양생장으로 치우쳐 오히려 수확이 한 달 이상 늦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식 전 꽃눈분화 확인은 안정적인 딸기수확의 필수과정이다.

이에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서 딸기묘를 가져오면 현미경으로 검사를 실시, 꽃눈분화 여부를 확인해 분화진행 정도에 따라 정식시기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딸기의 꽃눈분화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미경을 활용해 생장점이 꽃눈으로 형태적인 변화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고 8월 이후 폭염이 지속되는 등 예년과 많이 다른 기후로 인해 언제 딸기를 심어야 할지 고민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딸기 꽃눈분화 여부를 확인 후 정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완주군 경천면 요동마을 일원에 조성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평가단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천 싱그랭이 생태관광지 '엄지 척'

전북 생태관광지 최우수 등급 획득… 5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완주군 경천면 요동마을 일원에 조성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평가단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군은 5000만원의 인센티브까지 확보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는 국보 제316호 화암사 극락전, 연화공주설화, 복수초 군락지 등 우수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에코정원(유리온실), 싱그랭이숲, 연화공주정원, 생태체험센터 조성 등 생태관광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됐다.

특히, 전북형 생태관광공동플랫폼(주민협의체·마을사업단) 구축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완주군은 공동플랫폼 구축과 주민주도형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주민의 왕성한 활동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선도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가 완주군 대표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2020년 지평선쌀 품질관리원 교육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지난 9월 1일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지평선쌀 품질관리원 60명 중 유경험자를 제외한 31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평선쌀 품질관리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코로나 19가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따라 유경험자를 제외한 필수 인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지평선쌀 품질관리원 교육은 계약재배 단지 예찰요령, 도복 등 제외필지 확정, 단백질 함량검사 시료채취 요령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쌀 품질관리원을 통해 지평선쌀 계약재배 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김제시 대표브랜드인 지평선쌀의 품질향상 및 고급화로 지평선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